

지표의 변화와 퇴적암



퇴적 구조 (Depositional structures)



- 점이 층리 (Graded bedding)은 부유 상태로 있던 퇴적물이 유체의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입자가 큰 것이 먼저 가라 앉아 생긴 퇴적 구조 이다.
-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http://serc.carleton.edu/details/files/31388.html

KESO Korea Earth Science Clympia

지표의 변화와 퇴적암



후퇴적 구조 (Post-depositional structures)





- 후퇴적 구조 (Post-depositional structure)는 퇴적물이 쌓인 후 고화되어 암석이 되기 전까지 형성되는 퇴적구조이다.
- 컨벌루트 층리 (Convolute bedding)는 퇴적물이고화되기 전 퇴적물 위로 유체가 흐르면 퇴적물이 밀도가 높은 상태의 유체처럼 작용하여불규칙적으로 변형된다.
- 경사가 급한 곳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경우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퇴적물이 불안정해져 경사면을 따라 밀도가 높은 상태로 이동하면서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를 사태 (Slump)라고 한다.

KESO

지표의 변화와 퇴적암



후퇴적 구조 (Post-depositional structures)





- Rip-up clasts는 아래 쪽의 퇴적층이 고화되기 전에 (컨벌루트 층리나 하중 구조가 형성될 때 보다는 약간 더 고화되어 있음) 조립질 퇴적물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면 아래쪽의 약간 고화된 퇴적층을 뜯어 파편으로 조립질 퇴적물과 함께 쌓아 놓은 경우로 주로 셰일이 사암에 파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 **하중 구조 (Load structure)**는 아래 쪽의 세립질 퇴적층이 고화되기 전에 많은 양의 조립줄 퇴적물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유입되어 부유상태에서 가라 앉으면 조립질 퇴적물이 아래쪽 세립질 퇴적물을 눌러 휘어지게 만드는 하중구조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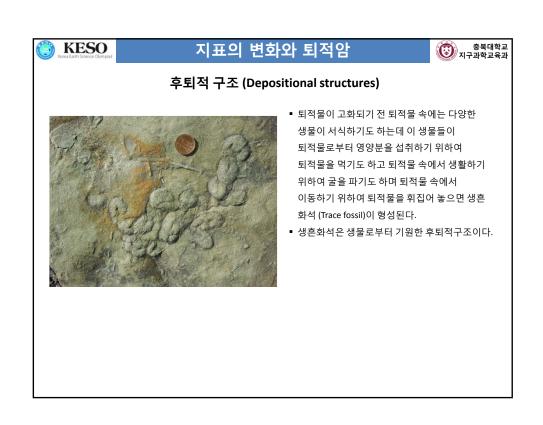


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퇴적 구조 (Depositional structures)

- 건열 (Mud crack)은 퇴적물이 고화되기 전 대기 중으로 노출되어 퇴적물의 상부가 건조되면서 갈라져 형성된 구조이다.
- 대부분 다각형의 형태로 갈라지고 갈라진 틈은 아래로 가면서 좁아진다.







지표의 변화와 퇴적암



퇴적암 (Sedimentary rock)

- 쇄설성 퇴적암 (Clastic sedimentary rock): 기존의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어 형성된 퇴적암으로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큰 순서로 역암, 사암, 실트암, 셰일/이암이 있다.
- 탄산염 퇴적암 (Carbonate sedimentary rock): 방해석질 껍질을 가진 생물의 유해가 쌓여 형성된 퇴적암으로 석회암이 대표적이다.
- 퇴적암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퇴적 작용이 후 고화 (Lithification)와 속석작용을 거쳐야 한다.



KESO Korea Earth Science Clympia

지표의 변화와 퇴적암



퇴적암 (Sedimentary rocks)

■ 퇴적물 입자의 크기

입자		크기	고화전	암석
Boulder (거력)		>256 mm		Conglomerate (역암), Breccia (각력암)
Cobble (왕자갈)		64 ~ 256 mm	0	
Pebble (잔자갈)		4 ~ 64 mm	Gravel	
Granule (왕모래)		2 ~ 4 mm		
Sand	V. Coarse	1 ~ 2 mm		Sandstone (사암)
	Coarse	1/2 ~ 1 mm		
	Medium	1/4 ~ 1/2 mm	Sand	
	Fine	1/8 ~ 1/4 mm		
	V. Fine	1/4 ~ 1/16 mm		
Silt	Coarse	1/16 ~ 1/64 mm	0.11	Siltstone (실트암)
	Fine	1/64 ~ 1/256 mm	Silt	
Clay		< 1/256 mm	Clay	Shale/Mudstone (셰일/이암)



